

# “음해·투서 뿌리 뽑겠다”

## 강운태시장 취임 1주년 앞두고 공직비리 감찰 강화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선 5기를 1주년을 앞두고 최근 1000억원대 총인 저감시설 사업자 선정 및 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 등 일련의 시정에서 불거진 기강해이와 관련 ‘일벌백계’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옛 전남도청 별관 갈등 해소, 새 야구장 및 광주U대회 선수촌 결정 등 지역 현안을 처리하고 6차례의 해외 투자유치, 중앙정부 예산 따이기 등에 나서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 내부는 느슨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강 드라이브’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광주시 간부회의에서 강 시장은 “민선 5기 들어 부정이나 비리가 드러난 적이 없어 다행”이라고 전제한 뒤 “근간 일부에서 시정 조직 음해, 투서 등 나오고 있다는 추측성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슴 아픈 일이며 사실 여부를 떠나 외부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혼신을 다해

창조도시 건설에 모든 것을 바쳤으며 여러분이 함께 해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비겁한 행위는 뿌리를 뽑아야하며 근거 없는 투서나 음해 당사자는 엄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투서나 음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소통 창구를 만들어 정당한 건의는 받되 투서나 음해 등 조직 내부를 좀 먹는 행위는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조직 개인신상이나 건의는 시장 비서실장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강 시장 본인만 보는 메일(cleank21@hanmail.net)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직접 편지를 쓰고 걸 봉투에 시장이 직접 보기를 바란다고 하면 이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방적으로 임명된 감사관에 ‘사전예방 감사’를 주문했다.

강 시장은 “개방적 감사관이니 더 활발하게 해야하며 시장의 주요시책, 관심사항, 대규모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점검해서 잘 되도록 챙겨줘야 한다”며 “초기단계부터 공사사업

부조리나 외부 세력과 결탁할 일은 없는 것인지, 외부에 노출되어서 공직자가 부담되는 경우는 없었는지, 일이 잘 못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감사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공직 비리는 추상처럼 처벌하며 비리 공직자는 보호는 물론 용서받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돌려내고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발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시장은 일하는 공직자 발탁과 관련 시장 내 무기계약직의 기능직공무원 전환을 예로 들었다. 강 시장은 “최근 무기계약직 중 근무연수가 오래된 순서대로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해보니 이전 기능직 공무원이 되려고 청탁을 안 해도 되겠다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시유지 매각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시유지가 부족해 도로나 공원, 시설 설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자투리땅이라도 합부로 팔지 말 것을 주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마련된 20일 조현오 경찰청장(왼쪽)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 참석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며 서울 미군동 경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는 김준규 검찰총장. /연합뉴스

# 檢 지휘권 보장 警 개시권 인정

## 국회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합의안 의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정부의 개정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정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20일 오후 5시에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이날 검·경 합의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196조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쳤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법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나아가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 불법 건축물 임대 등 물의 김종식 서구청장 주민·광주일보에 사과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사진)이 광주일보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무허가 건물 소유·임대(광주일보 6월 13일 6면)와 관련, 20일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또 본보 구독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사진)이 광주일보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무허가 건물 소유·임대(광주일보 6월 13일 6면)와 관련, 20일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또 본보 구독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구청 확대간부회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북구 중흥동 불법 건축물 소유·임대와 관련해 서구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불법 건축물은 최대한 빨리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본보 구독 등을 중단한 점에 대해서도 “구청장으로서 대 언론관에 대한 식견이 짧았다. 전적으로 (내)부덕의 소치”라며 “앞으로는 서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언론 관계

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무허가 건축물 등을 소유·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앞서 김 청장은 광주시 서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금을 놓고 국회의원들에 이어 구청장까지 자신의 공직임을 내세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와 관련, 본보 구독 중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광주일보는 서구의 요청에 따라 21일부터 서구청 및 17개 동주민센터 등에 신문 배포를 재개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 입지선정 감사 청구

‘국회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과학벨트 입지선정 내용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통지함에 따라, 입지선정 심사 과정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지난 5월23일 과학벨트 입지선정 절차상 나타난 구

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지선정 관련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에서는 해당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호남권유치위는 이에 따라 교과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과학벨트 입지선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기로 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불량법씨’ 전남 1만4578 농가 피해

## 정부 보급 호풍벼 등 20kg들이 4만5552포 사용

정부가 보급한 ‘불량 법씨’로 전남 도내에서만 무려 1만4000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종자원이 설립 이래 최초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호풍벼 뿐만 아니라 온누리·동진 2호·황금누리·온광벼·일미벼·새누리·남평벼·동진찰벼 등 모두 9개 품종에서 발아(發芽) 지연 및 불균일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20일 22개 시·군을 통해 정부 보급종 법씨 공급 농가 및 발아 불균형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만4578농가가 4만5552포(20kg들이)의 정부 보급종 법씨를 사용했다가 싹이 트지 않거나 모가 자라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민들 모두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종자를 믿고 썼다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하는 낭패를 겪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보성의 경우 2145 농가가 가장 많은 6077포의 정부 보급종

법씨를 사용, 피해가 가장 컸다. 이외 해남(993농가 6002포), 장성(1640농가 4498포), 담양(1493농가 4029포), 진도(995농가 3891포), 고흥(826농가 2811포), 영암(557농가 2433포), 화순(992농가 2408포) 등의 순이었다.

피해 상황을 읍묘 단계별로 보면 못자리 설치에 위해 2만1759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모내기에 들어갔던 농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침종(浸種)(7923포), 상자 파종(7819포) 과정 순으로 피해가 컸다.

농민들이 미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중단이 내려져 회수 조치된 법씨도 8051포(호풍벼 7714포·온누리 172포·동진 2호 165포)에 달했다. 온누리와 동진 2호의 경우 장성군이 국립종자원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지역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품종의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회수된 것이다.

피해 품종별로는 종자원이 사용 중

지 명령을 내린 호풍벼가 2만7081포로 가장 많았고 온누리(9209포), 동진 2호(4287포), 황금누리(2305포), 온광벼(1048포), 새누리(502포), 남평벼(202포), 동진찰벼(94포) 등이었다.

농민들은 또 모내기 시기가 촉박, 자칫 한 해 농사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대체 물량(4만2147포)을 대부분 스스로 확보, 모내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의 품질 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돼 고품질 쌀 생산에 적합하다는 정부 보급종마저 불량인 상황에서, 스스로 확보한 불량으로 모내기에 나서 향후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소득약제, 상토대, 인건비 보상비 지원단가는 다음달 초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농가 등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해상카니발 바다분수 불꽃쇼 바다콘서트

# 목포해양문화축제

2011 MOKPO MARITIME CULTURAL FESTIVAL

7. 29(금) - 8. 2(화) 5일간 목포 평화광장·삼학도

Korea Be Inspired

주최 목포시 주관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 PROGRAM

<p><b>평화광장</b> 7. 29 해상카니발, 멀티미디어 바다분수쇼, 바다캐주얼 파티, 해상 프로포즈 이벤트</p> <p>7. 30 해상카니발, 멀티미디어 바다분수쇼, 평화버디 락 콘서트</p> <p>7. 31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Rock &amp; Roll, 한여름밤의 콘서트</p> <p>8. 01 세종문화예술회관 예술지원팀 “뮤지컬 길라잡이”, 목포시민 열린무대</p> <p>8. 02 목포시민가요제 (HBC), 소원기원 때때 태우기, 페막 바다분수 불꽃쇼</p>	<p><b>삼학도</b> 7. 30 삼학도 마당극 난장 “익살난장”, 퓨전 국악콘서트 “삼학전지”</p> <p>7. 31 우수해양전통문화공연 “제주 숨비소리”, 목포시립교향악단 “심포니 난장”</p> <p>8. 01 제5회 비보이 올스타즈 목포페스티벌, MBC 라디오 방송 축하쇼</p>
--	--